



■ 정세균 국무총리 21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권고

“향후 보름이 중요… 행정명령 안파르면 시설 폐쇄”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을 15일 동안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한다”며 “불

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발열·인후통·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미 지난 두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같은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교회 예배 중단 권고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의 집회와 밀집 행사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22일 제주시 한 개신교회가 예배를 진행하자 신도들이 교회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돈 쓰세요” 현혹 후 순식간에 4800만원이…

‘저금리 대출문자’로 클릭 유도… 전화 가로채기 후 보이스피싱 사기

제주지역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가로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9~5.8% 저금리 대출’ 허위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피해자가 이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무심결에 클릭하는 순간, 그의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6일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엔 B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해 “대출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된다.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A씨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고 지난 17일 3000만원을 마련해 집 근처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고, 이튿날에는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보

증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속아 1800만원을 건네는 등 이를 사이 4800만원을 빼앗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커지고 있는 불안 심리에 편승해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병원 제주 첫 권역외상센터 개소
첨단 시설·전문 의료진 상주 24시간 가동

치명적인 외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제주지역 첫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연다.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23일 현관 앞에서 제주권역외상센터 개소식을 연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으로 장기내부 출혈, 다발성 골절 등을 당한 중증 외상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주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환자 전용 수술실(2곳)을 비롯해 중환자실(20병상), 외상 전용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고 외상세부 전문의와 외상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의료 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365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을 때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국 17개 권역별로 외상센터 개소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0%로 선진국 15% 내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특히 제주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중증 외상환자를 다른 도시로 이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인구 증가로 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며 지난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고 손상 사망자율은 60.3명으로 전국 평균(55.2명)보다 많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에 외상센터 개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서 15번째로 문을 연다. 제주한라병원은 지난 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받은 후 200억원을 투자해 시설 공사와 의료 인력·장비 확보 등의 준비를 마쳤다.

의료계는 제주권역외상센터가 개소하면서 도내 중증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추락 사고는 한해 500여건에 이른다.

김성수 병원장은 “중증 외상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신속한 수술과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권역외상센터가 생명의 최전선이자, 제주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 외상환자들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최대 30일 동안 치료를 받아도 특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된다. 이상민기자



23일 제주지역 첫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여는 제주한라병원 전경.

갓길 걷다 차에 치여 숨져

지난 19일 오후 9시49분쯤 서귀포시 상예동의 한 펜션 인근 도로 갓길을 걷던 A(48·여)씨가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B(49)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이태훈기자

현직 해경 숨진채 발견

현직 해양경찰관이 모텔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모 모텔에서 A(4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가족이 지난 19일 실종 신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물 관리 성적표 낙제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물 문제 해결 성적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원 도정이 출범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해도 하수 유입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면서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중 5곳에서 처리용량보다 유입수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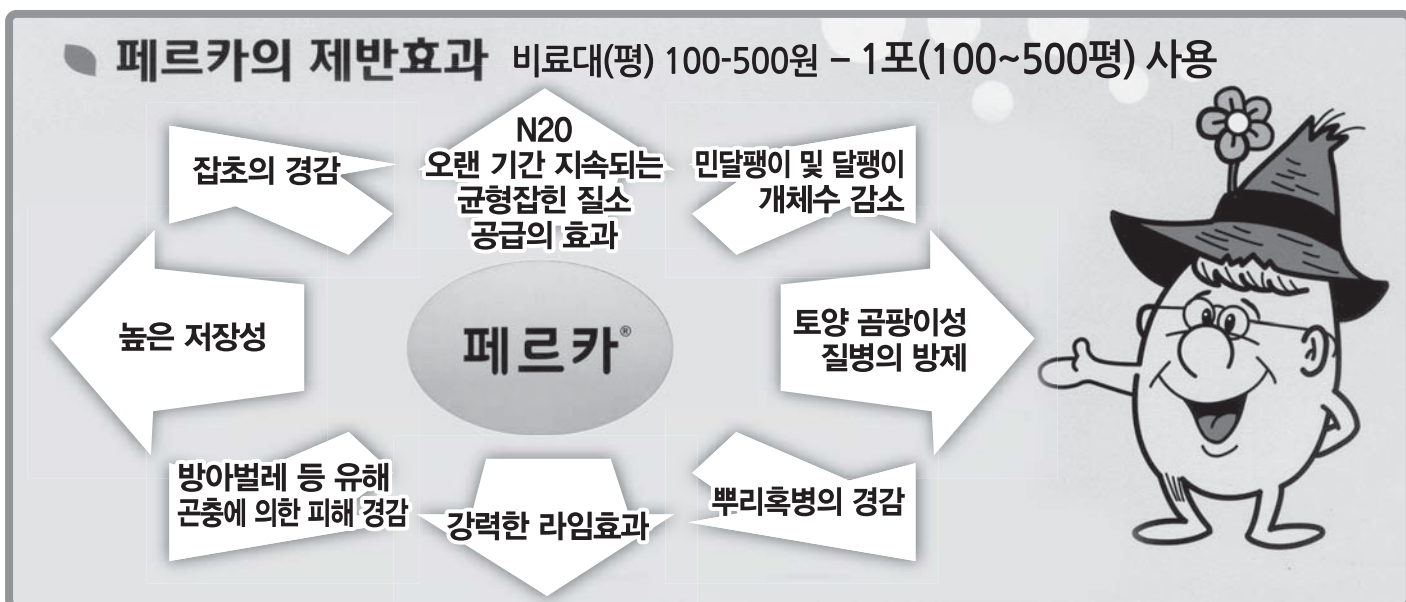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최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옆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